

『黃帝內經』의 三陰三陽 脈象에 대한 小考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白裕相¹ *

A Study on Pulse Condition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Baik You-sang¹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mong the various pulse diagnosis contents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we researched the pulse conditions that are belonged to Sameumsamyang(三陰三陽), and made a comparative study with pulse conditions of five organs[五臟], that of six meridians in 『Sanghallon(傷寒論)』. So from now on, this study would make help to understand standard pulse condition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diseases for clinical application.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pulse condition of Taeyang(太陽) is expressed to be floating, Yangmyeong(陽明)'s condition to be strong but with a little bit weakness, Soyang(少陽)'s condition to be intermediate between Eum(陰) and Yang(陽), Taeum(太陰)'s condition to be low and soft, So-eum(少陰)'s condition to be low and weak with some occasional upward tendency, Gweoleum(厥陰)'s condition to be mixed state of Eum and Yang.

Key Words : sameumsamyang(三陰三陽), pulse condition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pulse condition of six meridians, pulse condition of five organ, pulse diagnosis, pulse condition

I. 서론

『黃帝內經』에서 주로 나타나는 脈診法으로는 三部九候診法, 人迎寸口對比診法, 獨取寸口診法, 尺膚診法 등이 있으며 각각에 따라 脈象을 설명하고 있으나¹⁾²⁾, 三陰三陽脈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 脈象의 표현도 매우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黃帝內經』중에서 三陰三陽의 脈象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平人氣象論」, 「經脈別論」, 「陰陽別論」, 「至眞要大論」, 「陰陽類論」 등에 주로 나온다. 五臟脈 등의 다른 脈象에 비하여 설명이 아주 간략하며 부분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도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baikys@khu.ac.kr Tel : (02) 961-0326
접수일(2008년 7월 28일), 수정일(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1) 王敏, 楊春萍, 盛岩松. 黃帝內經脈診法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7. 13(10). pp.728-730.
2) 張裕祐, 林鎮錫. 黃帝內經에 나타난 脈診法에 관한 연구. 大韓原典醫學史學會誌. 1998. 11(2). pp.145-168.

있어서 후대에 크게 응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三陰三陽病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脈象에 대하여 임상 응용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자세하게 기술하지 못하였으며, 『傷寒論』이 나타나면서 六經病理 체계 속에서 일부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黃帝內經』의 여러 편에 나오는 三陰三陽 脈象을 살펴보았으며, 五臟脈과 『難經』의 三陰三陽脈 및 『傷寒論』의 六經脈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三陰三陽의 개념은 藏象, 經絡, 五運六氣 등과 결합하여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三陰三陽의 脈象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黃帝內經』의 여러 편에서 나오는 三陰三陽脈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 脈象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三陰三陽病의 辨證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三陰三陽 脈象에 대한 연구가 『傷寒論』의 脈法을 연구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본 론

1. 三陰三陽의 脈象

우선 「平人氣象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胃氣와 眞藏脈을 설명한 뒤 三陽의 脈象에 대해서 “太陽脈至, 洪大以長. 少陽脈至, 乍數乍疎, 乍短乍長. 陽明脈至, 浮大而短.”³⁾이라 하였다. 三陰脈은 肝, 腎, 脾 등 下焦 臟의 精氣와 관련이 있으며, 三陽脈은 전체적으로 陽氣가 氣化되어 올라온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三陽脈은 대체적으로 크고 떠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三陰脈은 대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平人氣象論」에서 太陽脈은 크고 길며 반면에 陽明脈은 떠있고 크면서 짧다고 하여 長短을 서로 대비하고 있다. 두 脈은 모두 크지만 太陽脈은 길 것으로 보

기에 세력이 강하게 느껴지고[洪] 陽明脈은 단지 위로 떠있을 뿐이다. 太陽脈에서 나타나는 洪脈은 여름에 나타나는 鉤脈과 같은데⁴⁾, 「四氣調神大論」에서도 “逆夏氣則太陽不長, 心氣內洞.”⁵⁾이라 하여 太陽을 여름에 배속하고 있다. 「玉機眞藏論」에서는 鉤脈을 “其氣來盛去衰”⁶⁾이라 하여 올 때는 강하고 지나갈 때는 약한 脈이라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洪脈이 비록 길게 나타나지만 속으로는 조금 虛한 象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陽明脈은 浮脈과 短脈이 함께 나타나는데, 원래 浮脈은 얇게 눌렀을 때 강하게 느껴지고 깊게 눌렀을 때는 약해지는 脈象이며, 短脈이 함께 나타나므로 陰氣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와 비슷한 脈象으로 「調經論」에서 “厥氣上逆. 其脈盛大以濇, 故中寒.”⁹⁾이라 하여, 속이 寒하지만 오히려 겉으로 盛大하게 나타나는데 이 때 脈이 濇한 것이 陽明脈의 短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¹⁰⁾. 「至眞要大論」에서도 “少陽之至, 大而浮, 陽明之至, 短而濇, 太陽之至, 大而長.”¹¹⁾이라 하여 陽明脈이 짧으면서 濇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陽明燥金의 특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다. 「玉機眞藏論」에서 가을의 毛脈을 “其氣來, 輕虛

- 4) 張介賓은 類經-脈色類-三陽脈體(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16.)에서 “太陽之氣, 王於穀雨後六十日, 是時陽氣太盛, 故其脈洪大而長也.”라 하였다.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
-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2.
- 7) 張介賓은 類經-脈色類-四時藏脈病有太過不及(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09.)에서 “鉤者, 舉指來盛, 去勢似衰, 蓋脈盛於外而去則無力, 陽之盛也, 心藏主之.”라 하였다.
- 8) 張介賓은 類經-脈色類-三陽脈體(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16.)에서 “陽明之氣, 王於雨水後六十日, 是時陽氣未盛, 陰氣尙存, 故脈雖浮大而仍兼短也.”라 하였다.
-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9.
- 10) 張介賓은 類經-疾病類-陰陽虛實寒熱隨而刺之(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04.)에서 “厥氣, 寒厥之氣也. 或寒氣傷藏, 或飲食傷涼, 寒留中焦, 陽氣乃去, 經脈凝滯, 故盛大而濇, 蓋陽脈流利多滑, 不滑則無陽可知, 此內傷證也.”라 하였다.
-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2.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6.

以浮，來急去散，故曰浮。”¹²⁾라 하여 위로 떠있지만 가볍고 虛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短濇한 脈象과 비슷하다¹³⁾.

少陽脈은 陰陽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 자주 뛰다가 느려지며, 짧아지다가 길어지기도 한다¹⁴⁾. 少陽의 성질은 樞로서 가운데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구절에서도 少陽脈의 象이 太陽脈과 陽明脈의 중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少陽脈이 “乍數乍疎”한 것으로부터 유추하면 太陽脈은 來盛하므로 조금 數에 가깝고, 陽明脈은 기운이 상대적으로 빠져있으므로 疎라고 볼 수 있다. 『至眞要大論』에서 少陽脈이 크면서 浮하다고 한 것은 少陽相火의 특성에 국한하여 표현한 것이다.

『經脈別論』에서는 三陰三陽의 脈象에 대해 “帝曰，太陽藏何象。岐伯曰，象三陽而浮也。帝曰，少陽藏何象。岐伯曰，象一陽也，一陽藏者，滑而不實也。帝曰，陽明藏何象。岐伯曰，象大浮也。太陰藏搏，言伏鼓也。二陰搏至，腎沈不浮也。”¹⁵⁾이라 설명하였다. 여기서 藏이란 氣가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三陰三陽 각각의 藏氣가 드러나는 脈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太陽藏

『經脈別論』에서 太陽藏의 脈象은 단지 떠있다고 하였는데¹⁶⁾, 같은 편에서 “太陽藏獨至，厥喘虛氣逆，是陰不足陽有餘也，表裏當俱瀉，取之下俞。”¹⁷⁾라 하여

陰은 부족하고 陽은 유여한데 表裏를 모두 瀉하라고 하였다. 안으로는 虛하면서 氣가 위로 거슬러 오르기 때문에 浮脈이 나타나는데, 『平人氣象論』에서 洪大하면서 길다고 한 것이 실제로는 脈氣가 속으로 虛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료에 있어서 表裏를 모두 瀉하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太陽이 주로 表에 위치하여 邪氣가 表에 머무르게 되니, 비록 陰分의 증상이 겹쳐 나타나다 하더라도 우선 瀉法을 사용하여 邪氣를 밖으로 몰아내라는 것이다¹⁸⁾. 『陰陽類論』에서는 “帝曰，所謂三陽者，太陽爲經，三陽脈至手太陰，弦浮而不沈¹⁹⁾，決以度，察以心，合之陰陽之論。”²⁰⁾이라 하여, 긴장되어[弦] 위로 떠있는 脈象으로 표현하였다. 『陰陽類論』에서 三陽脈이 모두 대체로 弦하게 나타나는 것은 陽分에 邪氣가 盛한 것을 의미한다.

2) 陽明藏

『經脈別論』에서 陽明藏의 脈象은 크고 떠있다고 하였으며²¹⁾, 또한 같은 편에서 “陽明藏獨至，是陽氣重并也，當瀉陽補陰，取之下俞。”²²⁾라 하여 陽氣가 중첩되어 있으니 陰을 補하라 하였다. 『傷寒論』 陽明病에서 熱이 안으로 뭉쳐있을 때 氣를 소통시켜 津液을 행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平人氣象論』과 『至眞要大論』에서 陽明脈이 짧으면서 濇하다고 한 것도 바로 陰의 津液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陰陽類論』에서는 “所謂二陽者，陽明也，至手太陰，弦而沈²³⁾，急不鼓，炅至以病皆死。”²⁴⁾라 하였는데, 이것도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2.

13) 張介賓은 類經脈色類四時藏脈病有太過不及(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09.)에서 “浮者，經虛之謂，來急去散者，以秋時陽氣尙在皮毛也，肺藏主之.”라 하였다.

14) 張介賓은 類經脈色類三陽脈體(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16.)에서 “少陽之氣，王於冬至後六十日，是時陽氣尙微，陰氣未退，故長數爲陽，短疎爲陰，而進退未定也.”라 하였다.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16) 張介賓은 類經脈色類六經獨至病脈分治(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17.)에서 “太陽之象三陽者，陽行於表，陽之極也，故脈浮於外.”라 하였다.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18) 일반적으로 注家들은 表裏를 臟과 腑의 太陽과 少陰으로 보았으나 인체 전체의 表裏로 보는 것이 三陰三陽의 개념에 가깝다.

19) 張介賓은 類經疾病類陰陽貴賤合病(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77.)에서 “太陽之脈，本洪大以長，今其弦浮不沈，是邪脈也.”라 하였다.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8.

21) 張介賓은 類經脈色類六經獨至病脈分治(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17.)에서 “陽明雖太陽之裏而實少陽之表，比之滑而不實者，則大而浮矣.”라 하였다.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23) 張介賓은 類經疾病類陰陽貴賤合病(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77.)에서 “陽明胃脈，本浮大而短，今則弦而沈急，不能振鼓，是木邪侮土，陰氣乘陽也.”라 하여 陽氣가 陰氣의 疇박을 받아서 沈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역시 熱邪가 속에 멎쳐서 풀리지 않는 것이니 脈이 비록 沈하지만 급하게 나타난다. 陽明脈이 沈하다는 것은 熱이 안으로 멎쳐있어서 太陽脈이 浮한 것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陰脈과 같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것이다.

3) 少陽藏

少陽藏의 脈象은 「經脈別論」에서 滑하되 實하지는 않다고 하였는데 보통 滑脈은 實하게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虛한 象을 겸하고 있다²⁵⁾. 같은 편에서 “少陽藏獨至, 是厥氣也, 躄前卒大, 取之下俞, 少陽獨至者, 一陽之過也.”²⁶⁾라 하여 脈象은 설명하지 않고 단지 厥氣라고만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虛證에 속함을 말해준다. 「陰陽類論」에서는 “一陽者少陽也, 至手太陰上連人迎, 弦急懸不絕, 此少陽之病也, 專陰則死.”²⁷⁾라 하여 弦脈이 급하면서도 매달린 듯이 약하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陰으로 치우치면 죽는다고 한 것은 역시 虛證을 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太陰藏

「經脈別論」에서 “太陰藏搏, 言伏鼓也.”라 하였고, 「至真要大論」에서도 “太陰之至, 其脈沈.”²⁸⁾이라 하여 脈이 가라앉아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經脈別論」에서 “太陰藏搏者²⁹⁾, 用心省真, 五脈氣少, 胃氣不平, 三陰也, 宜治其下俞, 補陽瀉陰.”³⁰⁾이라 하

여, 脈象을 세밀히 살펴야 하며 五臟의 氣가 모두 부족하고 胃氣가 고르지 못하여 陽氣를 補하고 陰邪를 瀉해야 한다고 하였다. 五臟脈 중 脾脈은 緩脈으로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脈象이므로 여기에서도 자세히 살펴라고 하였다. 陽氣를 보하는 이유는 비록 太陰脈이 조금 강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원래 沈脈이므로 氣를 보하는 치법을 쓰라는 것이다. 瀉陰의 陰은 濕, 痰飲 등의 邪氣를 말한다. 「陰陽類論」에서는 “三陰者, 六經之所主也, 交於太陰, 伏鼓不浮, 上空志心.”³¹⁾이라 하여 太陰이 중앙 土로서 六經을 모두 주관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위로 뜨지 않으니 氣가 위로 부족하여 마음이 공허해진다고 하였다³²⁾.

5) 少陰藏

「經脈別論」에서 “一陽獨躄, 少陽厥也, 陽并於上, 四脈爭張, 氣歸於腎, 宜治其經絡, 瀉陽補陰.”³³⁾이라 하였다. 一陽을 二陰으로 보아야 한다는 注釋도 있으나³⁴⁾, 一陽의 陽氣만 힘없이 위로 올라오고 다른 四方의 臟脈들은 精氣가 부족하여 다시 腎으로 되돌아가니 陰을 補하고 위로 올라온 陽氣는 瀉하라고 하였다. 陽氣가 위로 뜨는 것이 마치 『傷寒論』 少陰病에서 氣가 아래로 침체되었다가 고착되어 다시 瘀熱이나 瘀血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데 少陰藏에서 올라오는 陽氣를 三陽 중 少陽이라 표현한 이유는 陽氣의 세력이 陽明이나 太陽처럼 크지 않기 때문이다. 下焦로 氣가 모이는 것은 精氣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陰陽類論」에서 “二陰至肺, 其氣歸膀胱, 外連脾胃.”³⁵⁾라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8.

25) 張介賓은 類經-脈色類-六經獨至病脈分治(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17.)에서 “少陽之象一陽者, 少陽爲陽之裏, 陰之表, 所謂半表半裏, 陽之微也, 故雖滑不實.”이라 하였다.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8.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2.

29) 張介賓은 類經-脈色類-六經獨至病脈分治(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17.)에서 “太陰脾脈, 本貴和緩, 今見鼓搏, 類乎眞藏, 若眞藏果見, 不可治也.”라 하여 본래의 太陰脈象이 아니라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8.

32) 張介賓은 類經-疾病類-陰陽貴賤合病(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77.)에서 “肺主輕浮, 脾主和緩, 其本脈也. 今見伏鼓不浮則陰盛陽衰矣. 當病上焦空虛而脾肺之志及心神, 爲陰所傷, 皆致不足, 故曰上空志心.”이라 하였다.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34) 張介賓은 類經-脈色類-六經獨至病脈分治(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17.)에서 “一陽當作二陰, 少陽當作少陰.”이라 하였다.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하여 역시 膀胱으로 모인다고 하였으며, 『經脈別論』에서 “二陰搏至, 腎沈不浮也.”라 하여 沈脈으로 본 것도 같은 의미이다.

6) 厥陰藏

『經脈別論』에서 “一陰至, 厥陰之治也, 眞虛痛心, 厥氣留薄, 發爲白汗, 調食和藥, 治在下俞.”³⁶⁾라 하였는데, 虛證이 심하여 厥氣가 心으로 치고 들어가 식은 땀이 나게 되니 음식을 조절하고 처방을 조제하여 같이 복용하도록 하였다. 厥陰의 脈象에 대해서는 『陰陽類論』에서 “一陰獨至, 經絕氣浮, 不鼓, 鈎而滑.”³⁷⁾이라 하여 밖으로 鈎脈과 滑脈처럼 나타나지만, 안으로는 經氣가 끊어질 것 같고 위로 뜨면서 힘있게 박동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³⁸⁾. 鈎脈과 滑脈은 모두 陽에 속하는 脈인데 안으로는 기가 끊어져 매우 虛한 상태이므로 表裏가 서로 반대가 된다. 또한 鈎脈은 속이 虛하고 滑脈은 實하여 虛實이 함께 나타난다. 즉, 이것은 陰陽이 別離하여 錯雜되어 있는 매우 危重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三陰三陽 脈象과 五臟脈

三陰三陽의 脈象을 五臟脈과 결합하여 『陰陽別論』에서 “鼓一陽曰鈎, 鼓一陰曰毛, 鼓陽勝急曰弦, 鼓陽至而絕曰石, 陰陽相過曰溜.”³⁹⁾라 하였는데, 여기서 一陽과 一陰은 少陽, 厥陰을 가리키기보다는 陽氣와 陰氣가 처음 시작하는 象으로 보아야 하며 張介賓도 『類經疾病類陰陽發病』에서 “一陽一陰, 言陰陽之微也.”⁴⁰⁾라 하였다. 鈎脈은 겉으로는 강해보이나 去衰하며, 毛脈

도 “其來輕虛以浮”하여 속으로 虛함을 겸하고 있다. 鈎脈이 급해지면 긴장되어 弦脈이 되고, 힘이 없어서 끊어질 듯하면 아래로 가라앉아 石脈이 되며, 陰陽이 서로 섞이면 혼탁해진다고[溜] 하였다. 여기서 溜脈은 脾臟의 緩脈과 비슷하다⁴¹⁾. 『至眞要大論』에서 “厥陰之至, 其脈弦, 少陰之至, 其脈鈎, 太陰之至, 其脈沈.”⁴²⁾라 한 것은 각각 風木, 君火, 濕土의 象을 五臟脈과 연결하여 설명한 것이다.

3. 『難經』의 三陰三陽 脈象과 『傷寒論』의 六經病脈

『難經·七難』에서는 “經言少陽之至, 乍小乍大, 乍短乍長. 陽明之至, 浮大而短. 太陽之至, 洪大而長. 太陰之至, 繁大而長. 少陰之至, 緊細而微. 厥陰之至, 沉短而敦.”⁴³⁾이라 하였다. 『內經』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太陰脈은 “繁大而長”이라 하여 『內經』의 伏鼓脈과는 다른데 안으로 濕痰이 있거나 脹滿 등의 증상이 있을 때 脈이 뻗뻗하면서 盛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太陰濕土의 경우에 실제로 濕淫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浮하면서 盛한 脈象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⁴⁴⁾. 少陰脈은 뻗뻗하지만 가늘고 미약하다고 하였으며, 厥陰脈은 짧지만 넓게 퍼져 있고 두터워서 虛實을 겸한 것으로 보았다. 대체적으로 『難經』에서 말한 三陰脈들은 邪氣가 盛하거나 結하여 繁脈의 象이 나타나는 것이 『內經』과의 차이점이다.

『傷寒論』太陽病에서는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⁴⁵⁾이라 하여 주로 浮脈으로 표현하였는데 『經脈別論』에서 “象三陽而浮也”라 한 것과 같다. 陽明脈은 『傷寒論』에서 “傷寒三日, 陽明脈大.”⁴⁶⁾라 하

p.318.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8.

38) 張介賓은 類經疾病類陰陽貴賤合病(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77.)에서 “厥陰本脈, 當與滑弦長, 陰中有陽, 乃其正也. 若一陰獨至則經絕於中, 氣浮於外, 故不能鼓鈎而滑, 而但弦無胃, 生意竭矣.”라 하였다.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

40)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75.

41) 張介賓은 類經疾病類陰陽發病(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75.)에서 “陰陽相過, 謂流通平順也. 脈名曰溜, 其氣來柔緩而和, 應脾脈也.”라 하였다.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2.

43) 滑壽. 難經本義. 台南. 世一書局. 1981. p.24.

44) 滑壽는 難經本義(台南. 世一書局. 1981. p.26.)에서 “陽盛極則變而之陰矣, 故夏至後爲三陰用事之時, 而太陰之至, 陰氣尙微, 故其脈繁大而長.”이라 하여 太陰脈이 六氣의 三陰三陽 순서에서 夏至 직후의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음.

45)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118.

여 洪大하거나 淸數한 脈인데 『經脈別論』에서 “象大浮也”라 한 것과 같다. 단 『陰陽類論』에서 “弦而沈, 急不鼓.”라 하였는데, 急한 象이 바로 熱이 안으로 심하게 뭉쳐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短, 瀯 등 陰脈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少陽病的 脈象은 “傷寒, 脈弦細, 頭痛發熱者, 屬少陽.”⁴⁷⁾이라 하여 弦하면서 동시에 가늘다고 하였으니 少陽이 樞로서 表裏虛實을 겸하여 “乍數乍疎, 乍短乍長.”하게 脈象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며, 『陰陽類論』에서도 “弦急懸不絕”이라 하여 가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太陰病的 脈象에 대해서는 “傷寒, 脈浮而緩, 手足自溫者, 是爲系在太陰.”⁴⁸⁾이라 하였다. 緩脈은 『內經』에서 “伏鼓”나 “沈”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脈象과 비슷한데, 반대로 浮하다는 것은 濕熱 등의 病邪가 表로 나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脈象이다. 만약 濕이나 痰飲의 邪氣가 盛해 진다면 沈하면서 단단하게 脈象이 바뀔 것이다. 少陰病에서는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⁴⁹⁾라 하여 脈이 힘없이 사라지는 象이며, 『經脈別論』에서 “腎沈不浮也”라 한 것과 같다. 단, 熱厥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부의 陽氣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 厥陰病은 寒熱이 錯雜된 증상이 많으니 脈象도 “傷寒, 脈滑而厥者, 裏有熱...”⁵⁰⁾, “手足厥寒, 脈細欲絕者, 當歸四逆湯主之.”⁵¹⁾, “下利, 脈沈弦者, 下重也.”⁵²⁾ 등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⁵³⁾. 이것은 『陰陽類論』에서 “經絕氣浮, 不鼓, 鉤而滑.”이라 한 것처럼 陰陽이 錯雜되어 나타나는 脈象과 같다.

4. 기타 『黃帝內經』의 三陰三陽 脈象 관련 부분

『陰陽別論』에서 “三陰俱搏, 二十日夜半死. 二陰俱

搏, 十三日夕時死. 一陰俱搏, 十日死. 三陽俱搏且鼓, 三日死. 三陰三陽俱搏, 心腹滿. 發盡不得隱曲, 五日死. 二陽俱搏, 其病溫, 死不治, 不過十日死.”⁵⁴⁾라 하여 三陰三陽의 세력에 따라 병의 예후를 설명하였으며, 『陰陽類論』에서는 “二陽一陰, 陽明主病, 不勝一陰, 栗而動, 九竅皆沈. 三陽一陰, 太陽脈勝, 一陰不能止, 內亂五藏, 外爲驚駭. 二陰二陽, 病在肺, 少陰脈沈, 勝肺傷脾, 外傷四支. 二陰二陽皆交至, 病在腎, 罵詈妄行, 巔疾爲狂. 二陰一陽, 病出於腎, 陰氣客遊於心, 腕下空竅, 堤閉塞不通, 四支別離. 一陰一陽代絕, 此陰氣至心, 上下無常, 出入不知, 喉咽乾燥, 病在土脾. 二陽三陰, 至陰皆在, 陰不過陽, 陽氣不能止陰, 陰陽并絕, 浮爲血瘦, 沈爲膿臍.”⁵⁵⁾라 하여 三陰三陽의 脈이 겸하여 나타날 때의 象과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陽明脈과 厥陰脈이 나타나면 陽明이 주도하는데 厥陰의 기운을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부드럽게 뛰면서 陽氣는 가라앉으며, 少陰脈과 陽明脈이 나타나면 병은 肺에 있고 沈脈이 나타나며, 陽明脈과 太陰脈이 나타나면 陰陽이 함께 끊어진 것이니 浮脈이면 血瘦가 되고 沈脈이면 膿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밖에 『診要經終論』⁵⁶⁾, 『終始』⁵⁷⁾에서는 三陰三陽의 脈氣가 끊어져서 위급할 때의 증상들을 설명하였고, 『通天論』에서는 각 체질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⁵⁸⁾. 각각의 편을 참고하면 三陰三陽의 脈象을 類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III. 결론

三陰三陽의 개념은 藏象, 經絡, 五運六氣 등과 결합하여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三

46)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21.
 47)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51.
 48)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57.
 49)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58.
 50)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86.
 51)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86.
 52)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91.
 53) 曹遠禮. 仲景六經脈診特色探討. 湖北中醫學院學報. 2000. 2(3). pp.5-7.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2.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8-319.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54-55.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3.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2-303.

陰三陽의 脈象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太陽脈은 대체적으로 表部에 나타나고 크고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陽氣의 氣化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강조한 것이며 속은 寒水의 象을 가지고 있어서 虛하다. 陽明은 多氣多血하여 역시 뜨고 크게 나타나지만, 속으로 熱이 뭉쳐있을 때나 燥金의 성질이 강해질 때에는 短脈, 瀦脈, 沈脈 등으로 드러난다. 少陽은 樞로서 脈象이 음양의 중간적 성질을 띠면서 조금 약하면서 弦하게 나타난다. 太陰脈은 주로 沈하고 緩脈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데, 『傷寒論』에서 浮脈이라 한 것도 邪氣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脈象을 표현한 것이며, 『難經』에서 繁大하다고 한 것은 陰邪가 盛한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少陰脈은 氣가 허하여 沈하면서도 陽氣가 조금 올라오는 象이며, 厥陰脈은 寒熱虛實이 錯雜하면서 相反이 極하여 매우 危重한 象을 보여준다. 기타 『內經』의 여러 편에서 나오는 三陰三陽脈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 脈象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三陰三陽病의 辨證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 31, 32, 66, 72, 86, 219, 302. pp.54-55, 318-319.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3. pp.302-303.
5. 滑壽. 難經本義. 台南. 世一書局. 1981. p.24, 26.

參考文獻

「논문」

1.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5. 9. p.2-9.
2. 王敏, 楊春萍, 盛岩松. 黃帝內經脈診法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7. 13(10). pp.728-730.
3. 張溶祐, 林鎮錫. 黃帝內經에 나타난 脈診法에 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8. 11(2). pp.145-168.
4. 曹遠禮. 仲景六經脈診特色探討. 湖北中醫學院學報. 2000. 2(3). pp.5-7.

「단행본」

1.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118, 221, 251, 257, 258, 286.
2.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09, 116, 117, 275, 277, 304.

